



보 도 자 료

[총 4매]

배포 : 2018년 07월 16일(월)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협력개발부 인문진흥팀 이준하(02-739-8322) / 메일 dobogi@arko.or.kr

『인문예술콘서트 오늘』

〈을지로 Young & Lovely :

을지로 옛 골목에서 미래의 꿈을 꾸는 사람들〉

- 2018년 7월 26일(목) 세운상가 세운홀 저녁 7시 30분
- 《다시, 을지로》의 저자 김미경이 묻고, 을지로 청년 예술가들이 답한다
- 고대웅(R3028), 조민정(프래그 스튜디오), 윤상훈(작은 물) 작가들이 들려주는 솔직생생 을지로 이야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최창주, 이하 예술위)와 함께 개최하는 <인문예술콘서트 오늘> **을지로 특집편**이 오는 7월 26일 문화가 있는 주 목요일 세운상가 세운홀에서 진행된다.

□ '어제와 내일 사이'란 테마로 진행되는 <인문예술콘서트 오늘>의 두 번째 시간에는 최근 젊은 예술가와 장인들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을지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본다. 소규모 제조업 공장들이 밀집한 을지로는 한때 '한강의 기적'을 일군 주역이었으나 근대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든 후 빠른 속도로 쇠락하고 있다. 빈 공간을 예술가들의 작업실로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중구청의 지원 사업에 힘입어 지난 몇 년 새 많은 작가들이 을지로에 유입되었고, 이들의 이주는 을지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 2015년 무렵 을지로에 등지를 튼 고대웅, 조민정, 윤상훈 작가는 다양

한 기획과 활동 속에서 오며가며 인연을 맺게 된 사이로, 개인 작업뿐만 아니라 을지로의 주민들, 제조업 종사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세상을 위한 예술'을 목표로 창작과 예술교육을 지향하는 작가 집단 <R3028>의 수장 고대웅은 '차기 구청장' 감이란 우스갯소리가 돌 정도로 을지로에 정통한 활동가이다. <프래그 스튜디오>의 대표인 조민정은 조형대 시절의 전공인 금속공예를 매개로 을지로의 장인들과 제품 디자인 프로젝트 <을지생산>을 진행하는 등 이미 '콜라보'를 실천하고 있다. 세운상가 도시재생 프로젝트에서 연구원으로 참여한 바 있는 윤상훈은 최근 을지로 3가에 <작은 물>이란 카페 겸 전시·공연공간을 운영하며 '작은 공동체'의 실험을 이어나가고 있다.

□ 이번으로 43회를 맞이하는 <인문예술콘서트 오늘>의 7월편은 '문화 인큐베이터' 을지로를 집중 조명하는 **을지로 특집**으로 꾸며졌다. 근현대의 역사가 골목마다 켜켜이 쌓여 있는 '어제'의 을지로에서 '내일'의 새로운 을지로를 꿈꾸는 청년 예술가들의 '오늘'을 솔직하고 생생한 목소리로 들어본다. 아울러 사회를 맡은 김미경은 '을지로 연구자'로서 일련의 활동들을 짜임새 있게 설명해주리라 기대된다. 현재 서울에서 가장 '핫'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을지로를 세운상가에서 직접 만나보기 바란다.

□ 2015년부터 시작하여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마다 관객들을 찾아가는 <인문예술콘서트 오늘>은 행사일 2주 전부터 문체부와 예술위가 운영하는 인문정신문화 온라인서비스 '인문360°'(inmun360.culture.go.kr)에서 관람 신청이 가능하다. 별도의 비용은 없으며, 모든 공연은 '인문360°' 사이트와 유튜브*, 네이버 티브이(TV)캐스트**에서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 유튜브(<https://goo.gl/zjKl3v>, 혹은 검색창에 인문360 입력)

** 네이버 티브이(TV)캐스트(<http://tvcast.naver.com/inmun360>)

□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협력개발부 인문진흥팀 <인문예술콘서트 오늘>
담당 이준하(dobogi@arko.or.kr)

□ <인문예술콘서트 오늘> 개요

- 일 시 : 2018년 7월 26일(목) 오후 7시 30분
- 장 소 : **세운상가 세운홀**
- 관 랑 료 : 무료
- 관람신청 : <http://inmun360.culture.go.kr>
(인문360° 홈페이지 배너 '오늘+' 내 '관람신청' 페이지 이용)
- 관람문의 : 02-739-8322(협력개발부 대리, 인문예술콘서트 오늘 담당자 이준하)

□ 출연자 소개



고대웅
예술단체 <R3028>
작가대표,
도시예술가
(Urban-Artist)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에서 학생설계·한국표현예술을 전공한 뒤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 전공을 수료하였다. 조소를 기반으로 한국의 전통예술과 역사, 그리고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두 번의 개인전을 가졌고, UL:KIN과의 협업을 통해 2018 파리패션위크, 2018 서울패션위크에 참여했다.

<R3028>은 '세상을 위한 예술'이란 주제로 창작과 예술 교육을 지향하는 작가 집단이다. 여기서 그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철의골목:도시음악', '장인의 화원', '골목길거리', '빛이 세운 거리' 등의 프로젝트를 팀원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을지로 공업단지를 국내외 예술가들이 모여 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는 것이 목표이며, 지금까지의 활동들을 토대로 '도시재생에서의 예술의 역할 고찰'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다.



조민정
디자인 스튜디오
<프래그(PRAG)>
대표

국민대학교 조형대학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했으며, 동기인 이건희, 최현택과 함께 디자인 스튜디오 <프래그(PRAG)>를 운영하고 있다. 제품 디자인 프로젝트인 <을지생산>을 기획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윤상훈

카페 겸 공연·전시
공간 <작은 물> 대표

현재 을지로에서 카페 겸 공연·전시 공간 <작은 물> 운영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구성원들과 커피도 끓이고, 밥도 지어먹고, 노래도 한다.

2016년 세운상가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을지로와 연을 맺게 되었으며, 주민공모사업 <을지로 연;숲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작은 공동체의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사회자



김미경

<다시, 을지로>
저자

서강대학교에서 프랑스문화학과 신문방송학을 공부하고 동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전공했다. 독립문화예술기획자협동조합 <QUEUE> 활동을 통해 서울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가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석사 논문 (“장소 특정적 예술의 공간적 상상력:서울 세운상가를 중심으로”)을 썼다.

도시와 문화의 상호 작용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으며, 독립문화예술기획자 협동조합 <Queue> 프로젝트 매니저로 활동 중이다. 2018년에는 ‘일상생활의 사회학’, ‘공간적 상상력’이라는 사회학 틀로 바라본 을지로 연구서 <다시, 을지로>를 발간했다.